

전통시장전용
온누리상품권

전남이 서울보다 많이 구매

8월까지 296억 전국 1위…회수율도 크게 높아져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물들어 8월 말까지 전국에서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은 1681억 4060만원어치다. 이 중 전남에서 296억 974만원어치가 팔려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2579억 4486만원), 경기(238억 7402억원어치), 전북(191억 2844만원), 부산(120억 2834만원), 경북(103억 2183만원어치) 등의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32억 6014만원어치가 판매됐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억 1671만원(70.2%)어치가 더 팔렸다.

혔고, 광주도 10억 1733억원(45.3%) 어치가 더 판매됐다.

특히 목포와 순천지역의 판매가 눈에 띄었다.

목포지역은 전남도청을 비롯해 교육청·경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한 곳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지역은 대기업들의 참여가 들어난 곳이다.

지역 기업·공공기관들의 구매도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은행은 물들어 8월 말까지 2억 원어치를 이미 구매했고 추석을 맞아 추가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

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직원 1인당 50만원씩 22억 원어치를 구입해 추석선물로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추석 선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임단협이 타결되면 적려금으로 10만원씩 더 지급해야 14억 원어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등에서도 추석 선물용으로 대량 구입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회수율도 크게 높아졌다.

올들어 8월 말까지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44억 7935만원어치가 회수돼 137.3%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전남은 298억 1833만원, 회수율 100.7%를 나타냈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2%에 그쳤다.

던 회수율이 올해 137.3%로 크게 높아졌다.

광주의 경우 회수율이 30% 이상 웃든 것은 경기·서울 등 수도권에서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이 광주에서 사용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사는 자녀가 광주 부모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선물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온누리상품권의 회수율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전통시장 이용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1만원권과 5000원권이 있으며, 광주은행과 기업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1500여곳에 달하며, 사용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3일 광주 유·스퀘어 CGV터미널점에서 열린 기아차 광주 채용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선배사원들과 상담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퀴즈 풀고 영화보고 채용정보 얻고

기아차 광주 채용설명회

“퀴즈 풀고, 영화 보며 ‘디자인 기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13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CGV광주터미널점에서 광주지역 인재들을 대상으로 이색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채용설명회에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접수한 250여명이 참여했다.

기아차 인재기획팀장이 직접 회

사의 역사, 경영 현황, 미래 비전과 함께 하반기 채용 정보를 공개했다. 또 선배사원과의 개별 상담시간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문제들을 해결했다.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기아 시네마데이’ 행사를 통해 소통의 기회도 마련했다.

한편, 기아차는 15일 오후 5시까지 기아차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kia.co.kr>)를 통해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중소기업 10곳 중 6곳만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 있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0개 사 중 6곳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전남지역 중소제조업체 13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9.6%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63.7%보다 4.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둔화와 대기업의 생산물량 이전, 파업 등의 여파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 내수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상여금 지급수준 또한 기본급의 56.0%로 지난해 56.2%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물들어 추석자금으로 업체당 평균 2억 18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1억 3300만원이 확보 가능하고, 8500만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해 자금부족률이 39.0%로 조사됐다.

자금사정에 대해서는 56.0%가 ‘곤란’(40.3%) 또는 ‘매우 곤란’(15.7%)하다고 응답했고, 주원인(복수 응답)은 매출 감소(70.8%), 판매대금 회수 지연(51.3%) 등을 꼽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근로장려금 5971억 추석전 지급

국세청, 저소득 73만5000 가구 81만원씩

국세청이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93만 가구중 73만 5000 가구에 모두 5971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가구당 수령액은 81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득을 국세청이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가구는 물들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93만 가구 가운데 수입요건 심사를 마친 91만 3000 가구의 79%다. 가구별로는 4만 원 증가했다.

태풍 피해가 심한 호남·충청·제주에는 작년보다 549억원 늘어난 총 1687억 원을 제공한다. 피해 서민의 추석 자금 수요에 도움을 주려는 조

치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13일부터 개별통지 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나 담당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중 체납액을 빼야 한다.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손처분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신청자 557명은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올해 수급자 현황을 보면 광주는 5.9%(3만 5000가구) 전남은 4.8%(3만 5000가구)였으며 경기도가 19.5%로 가장 많고 울산이 1.6%로 가장 적었다.

/최재현기자 lion@kwangju.co.kr

개점 14주년 맞는 롯데백화점 광주점 류민열 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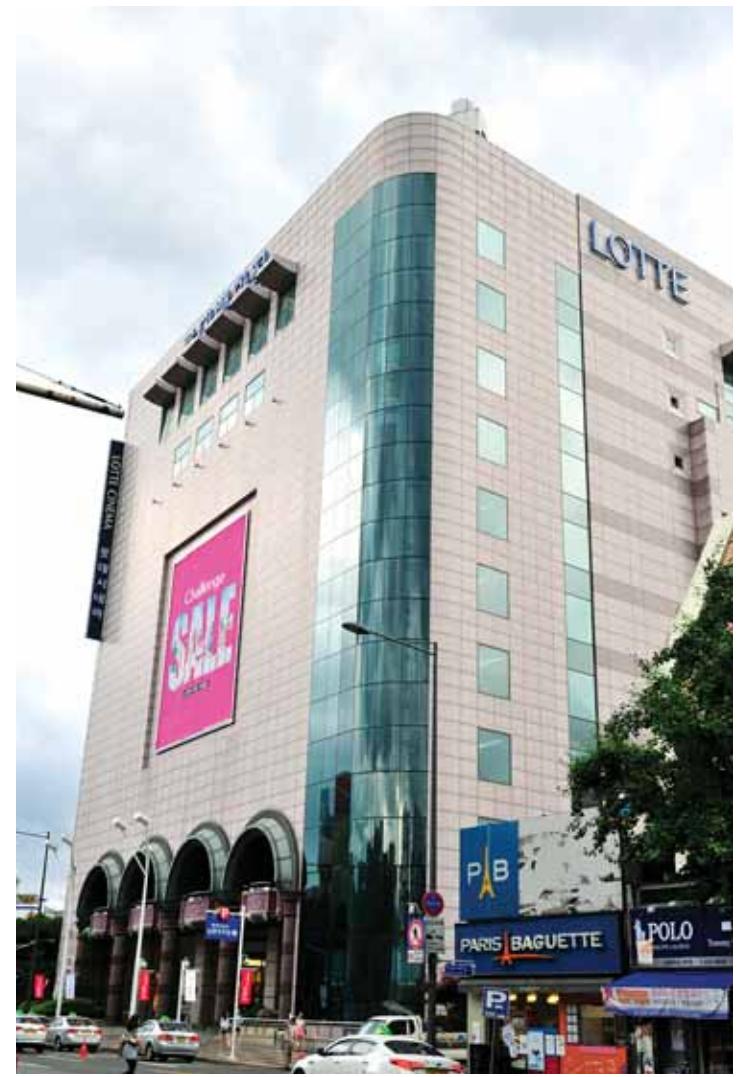
“광주 구도심 활성화 앞장서겠다”

“지역경제
와 광주 구도
심 활성화에
앞장 서겠습니다.”



오는 18일
개점 14주년
을 맞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이끌고 있는 류민열 점장의 각오다.

류 점장은 “지역의 유통문화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도심 공동화로 쇠퇴한 광주 동구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패션·문화 중심지 충장로를 재현하자는 콘셉트로 최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단행했다.

저렴한 가격과 유행에 민감하게 반영해 젊은 세대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자라, 니讵를 포함한 SPA브랜드들을 입점시키고 젊은 감각을 반영한 증·개축으로 전국 최고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의 명품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문화사업 확대를 위해 총 23억 원을 들여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롯데문화홀’을 개관하고 광주지역 최초로 퍼스트 클래스급 상영관인 ‘샤롯데관’을 오픈해 구도심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했다.

고객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업답게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집중 근무시간 제도’ ‘고객 약속 불이행 제로 캠페인’

‘서비스 라인 지키기’ 등 서비스 3대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지역민과 함께 공감하는 지역친화 기업으로 지역공헌 사업(소외계층 돕기, KIA타이거즈 후원, ‘아름다운 가게’ 함께 하는 녹색 마케팅, 사랑의 집 고쳐주기·‘러브하우스’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류 점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상

생 발전을 위해 지역 우수상품 전시·판촉행사 등 지역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 광주 우수 농특산품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구도심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0대 그룹 ‘열린 채용’ 도입 저소득층 우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대기업들의 공개채용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열린(우대) 채용’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일체민 장관은 13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저소득층 열린채용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LG·SK·현대·두산·롯데·삼성·KTF·포스코 등 7개 그룹 계열사 임원들과 만나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취업 지원에 관

한 기업별 추진 방향과 정부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LG, 롯데, 삼성, SK, 포스코는 하반기에 신입사원 공채시 기초수급자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가산점을 주거나 별도 채용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LG와 SK는 모든 계열사에, 롯데는 2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리아)에 이 같은 ‘열린채용’을 시범 적용한다.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코스피지수 1,950.69 (+0.66)
▲ 코스닥지수 520.48 (+2.96)
▼ 금리 (국고채 3년) 2.87% (+0.07)
▲ 원·달러 환율 1,128.40원 (+2.00)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類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 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 의 차만 납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 를 권합니다.

감농Set
다단Set
우전감로
감사Set

광주 차생원: 062)224-2902 광주 신세계점: 062)560-1252 광주 롯데점: 062)221-1057 광주 현대점: 062)510-7040
부산 차생원: 061)281-1002 서울 차생원: 02)730-2983

한국제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완전 탈부착형
테일 ×, 핀 ×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린아인드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지도